

결혼식장·카페·식당 인원 제한...종교시설 식사 금지

광주 1.5단계 격상...무엇이 바뀌나

모임·축제 행사 100명 미만으로
스포츠관람 관중 30%만 입장
시민 불편·자영업자 영업 타격

광주시가 지역 최대 병원인 전남대병원발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키로 하면서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의 영업 타격이 우려된다.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경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4㎡당 이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결혼 축하객과 조문객조차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다. 클럽 등 유흥시설(5종)에서의 춤추기가 금지되고, 학원·식당·카페도 면적 당 인원이 제한되거나 한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해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사 등 종교 행사 시 인원 제한과 함께 식사도 금지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성된다.

광주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되며, 전남 동부권 도시인 순천과 광양, 여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1.5단계로 격상 조처했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5종)에서 춤추기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 50㎡(15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좌석 1m 거리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칸막이 설치 의무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14종)에서는 4㎡당 이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도 실천해야 한다.

모임, 축제 등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구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경우 좌석 수 30%



코로나19 확산으로 1동 병실 전체의 코호트 격리와 응급실, 외래 등 전체 진료가 중단된 광주 동구 서석동 전남대학교병원에서 17일 오후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 30%만 입장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도 등 방역당국은 방역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도민들은 마스크 쓰기, 손씻기, 외출 자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선별 집단검사를 해보면 학교, 유치원 등 마스크 착용이 잘 이뤄진 곳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만,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주, 접촉이 잦아지는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전남대병원 집단감염 확산 충격

5일간 29명...확진자 속출

“스스런 방역이 감염사태 키워”

국가 지정 감염병 치료 병상이 있는 전남대병원이 동원 집단(코호트) 격리 등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남대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9명이다. 지난 13일 전공의 확진 판정 이후 광주(24명)는 물론 목포(4명), 경기 광명(1명)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만 의사 4명·간호사 2명·방사선사 1명 등 의료진 7명, 환자 4명, 보호자 3명, 입주업체 직원과 지인, 가족 등 10명이 감염됐다. 첫 확진자가 나온 신경외과는 물론 다른 병동에

서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병원 측은 1동 병실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고 응급실, 외래 진료도 22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어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탓에 충격은 더 크다.

일부에서는 의료진의 방역 수칙 이행에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병원내에선 입원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 상당수가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병원내에서 생활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대병원 관련자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끼리, 환자와 보호자 간 접촉도 있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의료진 회식, 가족 간 접촉 등으로 확산했으며, 확진자의 자녀, 부모,

자녀를 돌봐주는 친척까지 감염되는 강한 전파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초 감염원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디에서부터 감염이 시작돼 병원 안팎으로 번졌는지 파악하는 게 역학 조사의 과제”라며 “전남대병원뿐 아니라 최근 확산 양상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대규모로 나오는 건 지역 안에 감염자들이 산재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률이 100%가 될 수 없는 여러 여건이 있다. 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상했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건 맞다”며 “앞으로 마스크, 손 위생 등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응급실·외래진료 중단 연기하고 입원환자 인근 병원 분산

전남대병원 의료 공백 현실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이 외래 및 응급실 진료를 전면 중단했다. 광주·전남지역 거점 병원의 의료공백으로 인해 외래 및 예약 환자는 물론 응급·중증·장기 투병 환자 등의 치료에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17일 광주 학동 본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래 및 응급실 진료 중단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측은 지난 13일 밤 신경외과 전공의(광주 546번)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4~16일까지 응급실과 외래 진료를 일시 중단하고, 직원·환자·보호자 등 50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했다. 병원 내부 회의 결과 원내 감염 확산세가 안정

될 때까지는 외래진료를 재개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진료 중단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는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있다. 나머지 환자들도 광주지역 종합병원으로 보내고 있으며,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들은 현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불어 4000여 명 규모인 외래 환자의 경우 예약 연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는 받지 않는다.

또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전화로 장기 복용 약 처방을 신청한 이들에게는 1동 출입구에서 처방전을 배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총 1028명 중 386명이 입원 중이며, 300여명이 지역 내 20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환자 중 154명은 코호트(동원 집단) 격리 대상인 1동 환자들이며, 이들과 일부 중증 환자들은 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단됐던 원내 수술은 입원 환자에 한해서만 이날부터 재개됐다. 입원 환자가 아닌 경우 전화로 수술 일정을 연기했으며, 수술이 시급한 환자는 광주시와 협의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도록 연계했다.

전남대병원은 의료진 확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한 신경외과에 화순 전남대병원의 의료진 2명을 투입했으며, 정부에서도 의료진 4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지난 16일부터는 병실을 출입하는 보호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의무화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단계 격상 방역수칙 변경

적용기간	20.11.19.(목) 0시~ 별도 해제시까지
허용(방역수칙 준수)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방역 계획 수립하여 해당 지구에 신고협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집합제한 시설	〈중점관리 9종〉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노래연습장) 4㎡당 1명 인원제한 〈일반관리 14종〉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 4㎡당 1명 인원제한 ·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공연장,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정구예배 등 좌석수의 50% 운영, 모임식사 금지 · 기본방역수칙 준수(출입명부, 마스크, 환기소독)
공공시설	50% 운영 단, 스크린링마장 20% 운영
사회복지시설 (아르인입)	운영 ·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30%)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